

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단청·조각·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식
 T. 931-2287(화선), 936-0069(전서관)

현대불교

고개를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만평생통장
 ■이자가 오르면 오존금리로 내리는 빅만금리로!
 ■고액저금, 우대저금, 영도저금, 노후생활자금 등 다양한 대우서비스 제공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노태평/발행인 겸 편집인 김공삼/논설고문·고은/편집국장 최정희/인쇄인 김규석/등록번호·다·3379/☎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대표전화·737-8881/편집국·722-4162 FAX·737-0698/광고국·737-0692/구독신청·737-0693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창간 2540년(서기 1996년) 3월 13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이렇게 들었다

조계종 총무원이 해방이후 불교계와 관련한 재판 관례집을 묶어냈다. 모아진 것만 약 300권을 엮어 그 작업량 자체로 방대하지만, 세간법에서 가려진 불교계 관련 사법기 모자란 관례집이라 의미가 적지 않다. 부처님이 사비에 대해 언급한 경구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마음이 망상과 분별을 일으키면, 내니 남이니 중생이니 목숨이니 하는 데 집착하게 된다. 법(진리) 혹은 고법(고법)에도 집착하지 말고, 법 아닌 데도 집착하지 말라. 내 가르침은 땀과 같은 것. 법도 흐려 버려야 할 것인데 허물며 법 아닌 것이라. (금강경)

중언으로 불려나갔을 때 자신의 이익이나 재 3자를 위해 또는 재물을 위해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숫타니파타)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남이 했던 말도 상관하지 말라. 다만 내 자신이 저지른 허물과 계를 보라. (법구경)

법(진리)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뜻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말라. 지혜에 의지하고 지식에 의지하지 말라. 요의(了義)에 의지하고 불요의에 의지하지 말라. (열반경)

연꽃은 진흙 속에 살면서도 진흙에 더럽히지 않듯이, 보살은 세속에 살면서도 세속의 일에 머물지 않는다. (보적경 가섭품)

불법(佛法)과 세간법은 결

시비 논쟁

국 같은 것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세간법은 불법에 들어오고 불법은 세간법에 들어간다. 이와같이 불법과 세간법을 서로 틀어박히지 말고, 세간법이 불법을 깨뜨릴 수도 없다. 진실한 지혜의 세계는 파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화엄경)

허물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의혹이 있게 되고, 의혹 때문에 욕구되는 것이 있게 되고, 그 욕구되는 것 때문에 원(怨)이 있게 된다. 지 원(怨) 때문에 증(憎)이 있게 되고, 증(憎) 때문에 칼을 서로 잡고 맞서다든가 소송해 싸운다든가 다음에 참곡(參曲)이 생긴다든가, 이런 가지가지의 악행이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자서소문경)

다섯가지 역사가 있으니 이것이 가장 큰 악행이다. 다섯 가지란 무엇인가. 고의로 아버지를 죽이는 일, 어머니를 죽이는 일, 아라한을 죽이는 일, 교단의 화합을 깨어 분열시키는 일, 부처님 몸을 상하여 파멸하게 하는 일이다. 이런 것을 오역이라 하고 이 죄를 지은 자는 두 간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대방광심결경)

“초파일을 국민축제로”

봉축행사 ‘연등축제’ 전환...인터넷 마당 개설

봉축위, 한달간 종로·인사동 ‘전통축제 거리’ 지정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대법회와 재등경림이 연등축제로 바뀌고,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1달간, 서울 종로와 인사동 일대가 ‘전통축제의 거리’로 지정되어 다양한 봉축행사가 펼쳐진다.

이 참여하는 시민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 모든 봉축행사를 연등축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한 봉축위는 금년도 연등축제의 주제를 ‘깨달음의 사회화’로 정하고, 봉축표어 공모에서 당선된 ‘마음을 청정하게, 세상을 맑고 아름답게’를 슬로건으로 확정했다.

이 같은 연등축제의 정착을 위해 봉축위는 이미지 통일(EIP)을 위한 시각상징물을 개발하기로 하고 봉축 전용서체, 캐릭터, 색상을 개발해 취장, 현수막, 깃발 등을 통일할 계획이다. 연등축제의 이미지 통일 작업은 전국 20여개의 지역봉축위와 연대해 전개한다.

봉축위 관계자는 “연등축제는 국가행사로 행해지던 연등회, 광명회의 전통을 되살리는 것으로, 전통문화와 보존하고 계승하는 불교이미지를 최대한 부각하겠다”고 말했다.



‘새싹불자의 입학식’ 지난 4일 종립 은석초등학교(교장 김병호)학년 200명이 새로 입학했다. 초등학교 명칭을 사용한 첫 해 입학한 학년 (사진=고영매 기자)

올해년 동안거 해제

조계종 총무원이 비록 전국의 선원과 사찰은 지난 4일 불기 2539년도 동안거를 해제했다. 이번 안거에는 조계종4개 선원에서 1천7백여명의 스님이 정진에 임했다. 한편 이날 신원사 계룡선원 국제선방에서도 20여명의 외국인수좌가 해제했다. (관련기사 5면)

태고종 해초 총무원장 취임

태고종은 오는 20일 오전 11시 신촌 봉원사 삼천불전에서 제17대 총무원장 해초스님 취임식을 갖는다. 제17대 총무원장취임 준비위원회(공동위원장 인공·원법)는 지난 13일 총무원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2월 6일 72차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해초스님의 취임법회를 봉행하기로 했다. 한편 해초스님은 지난 2월 23일 종단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내놓기로하고 1차로 3천만원을 종단에 기부했다.

봉축위 관계자는 “연등축제는 국가행사로 행해지던 연등회, 광명회의 전통을 되살리는 것으로, 전통문화와 보존하고 계승하는 불교이미지를 최대한 부각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연수회가 지난 7일 통도사에서 열렸다. 이날 월하 종정스님은 법어를 통해 “종단과 불교발전을 위해 무소유를 실천하는 각별한 수행정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첫 연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의장 설정)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통도사에서 의원 연수회를 개최했다. 종회활동의 활성화와 정책입안기능의 강화를 위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연수회에는 제11대 종회의원을 비롯 중무기관 간부 스님들 1백여명이 참석했다. 강연과 토의로 진행된 이번 연수회에서 종회의원들은 7개 본과의 95년도 활동을 분석하고 96년도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사원경제 활성화방안(김갑주교수·동국대 경주부총장)과 국외운영(이중흥 국회사무총장)에 관한 강연을 청취했다. 한편 이번 연수회에는 여야 4

당 정책위의장을 초청, 각 당의 종교정책을 듣고 불교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관련기사 2면)

北창구 단일화 합의
 종교인협 ‘대회의 모임’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의 대회의 모임이 지난 5일 원불교 서울회관에서 불교 기독교 등 50여명의 종교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북한 수재민 돕기를 중심으로 한 남북한 민간교류 협력의 문제를 논의하고, 북한으로 향하는 징구를 단일화하기로 합의했다.

조계종 ‘불교 판례집’ 간행

해방이후 사찰행정·재산환수등 일목요연 정리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4일 해방후부터 지난해까지의 불교관련 각종 관례를 모은 <불교 판례집>을 발간했다. (관련기사 3면)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에 걸쳐 정리된 이번 판례집은 총무원과 사찰에 소장된 관례, 국회사,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법률정보시스템에서 불교관련 관례를 수집, 책으로 엮었다.

판례집은 해방이후 50년간의 불교관련관례 2백95건을 △사찰의 행정관계 △불교재산 소

유권귀속과 망실재산 환수 △종단분규와 사찰 대표·임명권 △인상총무원활동과 생활법률 △종교활동과 형사문제 △불교관련민사소송과 절차등 6장 32절로 일목요연하게 분류해 법률과 관련된 불교의 권리의식, 자치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불교판례집>간행에 대해 연기영 교수(동국대 법학과)는 “현대사회에서 포교와 도제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세간법을 피할 수 없다”며 “종교활동과 관련된 형사 민사 행정상 발생

하는 법률적문제를 판례집을 통해 미리 예방하고 대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총무원은 불교판례집이 이어 주요관례와 해설을 담은 ‘(가칭)종교의 자유와 불교법제’를 4월에 간행하며 판례집에 수록되지 못한 불교판례와 96년이후의 관례를 중보판으로 계속 발간할 예정이다.

법공양판 발행
 타블로이드 4면

證明 大韓佛教曹溪宗
 宗正 月下 大宗師

석지형 스님의 구도적 예술세계

민족평화통일 · 2002년 월드컵한국유치 · 불교중흥 기원 불교문화제전

영축산 동도사비구 玉龍子 석지형 스님

大吉祥圖 作品展

修行과 포교에 전념하여온 玉龍子석지형 스님이 불국정토성취의 원력으로 20여년간 吉祥圖를 연구하고 정진하여 포교·복지·장학불사의 후원을 위해 지난 한 겨울동안 한점한점 기도하며 밤새워 그려낸 장엄하고 환희충만한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기념 대법회 : 1996. 3. 21(목) 오전 11시
 - 장 소 :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 · 2층 전시관

· 불교문화대강좌 : 3. 21 ~ 23 오전11시 (10층 대강당)
 · 작 품 전 : 3. 21 ~ 3. 24 매일 오전10시~오후7시 (부산일보사 2층 전시관)

- 초 청 법 사 : 무진장 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 성암도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 서윤길 교수(동국대 불교대학장) 류시화 선생(시인)
 - 불자연예인 공연 : 김홍국(불자가수회장), 두레 외

* 기념품 증정 : 참석하신 불자님께 玉龍子석지형 스님이 그린 길상도가 새겨진 호신불 목걸이와 아름다운 길상도 염서세트, 손염주등을 정성으로 전하여 드립니다.

● 주 관 : 대한불교조계종금강불교아카데미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1동 1729
 금강불교아카데미총동문회 TEL:(051)621-8548~9 FAX:625-2741

● 후 원 : 대한불교조계종 영축총림 통도사 · BBS8 불교방송 · 불교텔레비전 32
 서울소리불교아카데미총동문회 · 서울소리불교 장학회 · 창원 구룡사신도회